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전완준 화순군수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착공”

“투자 유치와 ‘I LOVE 화순 운동’의 본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I LOVE 화순 운동’

전완준 화순군수는 “화순군의 성장동력은 생물산업단지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에 있다”며 “세계적인 관련 연구소와 의약품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군정발전기

600억원 규모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안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I love 화순운동’으로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 실현을 위한 화순사랑 불을 조성, 전국 10대 살기 좋은 군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 군수는 동북면 유천리 모후산에 790억 원을 들여 1천500ha 규모의 체류형 관광명소인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올해 착공, 오는 2009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신 연구소 건립 추진

모후산 테마파크는 역사·생태·체험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로 전업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는 물론 다가오

는 각종 농공단지 활성화는 물론 친환경 하이테크 기업유치를 위해 신규 농공단지 5만평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에산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부터 28억원으로 늘려 화순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뛰어난 영어 보조교사 지원 및 영어타운 운영지원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 체험형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 유명 학원과 사이

버 교육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체결,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진흥 기금 조성액을 총 50억원으로 확대, 지역발전의 인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인 자립 기반 조성

전완준은 농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86억원 증액된 546억원을 배정하는 등 농업인의 자립 및 소득 기반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 군수는 “화순군은 지난해에 도내 지자체 중 목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 인사혁신을 이뤘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모든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그리나리’

곡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채택

곡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그리나리(GreenAri)’가 채택됐다.

곡성군은 15일 군민회관에서 지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그리나리’ 선포식을 가졌다.



곡성군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친환경을 의미하는 영문 ‘Green’과 한국(산)을 의미하는 ‘Ari’를 조합한 ‘그리나리’ 개발을 완료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곡성군은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그리나리를 부착하는 등 공동 브랜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화순 아산 더덕 출하 화순 관내 아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더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더덕은 2kg 선물용이 3~10만원에 호기하고 있으나, 물량이 달릴 정도로 추운이 싸들고 있다. 더덕은 기침이나 기관지염, 폐결핵, 고혈압, 편도선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도·경남도 협의회 구성

해양관광벨트 사업 가속화



보성경찰 대낮 음주 단속 보성경찰서(서장 안병호)가 최근 국도와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경찰은 또 각 마을을 돌며 교통사고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성=안규일기자@

전남도와 경남도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와 탐사르 홍보 등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 도는 15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2여수박람회와 2008 탐사르 홍보를 계기로 관광분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 도는 여수 세계박람회도 부산까지 참여하는 ‘남해안 엑스포’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양관광벨트 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수 낙포동과 남해군 서면에 있는 ‘한려대교’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양 도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수천만에서 두 도지사과 환경단체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탐사르 등록습지인 경남 우포늪과 순천만의 연대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해맞이 행

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경남의 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5억원을 전남도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협조 분위기에 힘입어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과 경남도의 ‘연구·교습어업’ 권역 설정 등으로 불거진 양 도간 바다경계 갈등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인 지 주목된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도 토지면적 26km나 늘었다

지난해 전남도 토지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배인 26km가 증가한 1만2천 121km(37억평)로 조사됐다.

이는 무안·해남·목포 영산강 일원 신규등록 매립지 16.1km와 주민없는 토지의 신규등록 5.5km, 목포해역방

로 조사됐다. 도로개설 등 SOC사업 증가와 투자유치 등으로 대지, 공장용지, 도로, 주차장 등의 지목은 늘어난 반면 산지 훼손과 농지전용 등으로 담, 임야 등의 지목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 순천, 화순, 고흥, 보성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국제규모 농업박람회 개최하려면

450억 국비 지원·2011년이 적합

송문갑 교수팀 용역 결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국제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비 450억 원이 투입돼야 하며 2011년이 개최시기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주최로 최근 열린 국제 농

업박람회 준비연구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송문갑 동산대학교수팀은 “농업박람회를 국제 규모로 치르려면 정부로부터 국제 대회 승인을 받아 최소 450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농업박람회를 개최할 경

우 생산유발 효과 3천억원에 3천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문갑은 “국내의 국제행사를 감안할 때 오는 2011년이 개최 시기로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에 여수엑스포 지원단과 같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올해 정부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기반시설과 홍보활동, 세부적인 전시기조 조정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동기자 song@

‘심시일반’의 기적을 만들자

광산구, 소외계층 생활 보장 ‘희망광산 나눔 운동’

광산구가 관내 수천 세대에 달하는 소외계층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희망광산 나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연중 펼쳐지는 ‘희망광산 나눔 운동’은 질병·장애·실업·고령 등

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후원자를 결연시키게 된다. 후원자는 현금(1구와 5천원 이상), 생활용품, 가정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현금이나 물품의 경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원된다. 구는 주민과 기업체,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나눔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가 지역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내에는 국민 기초수급자 5천575세대와 차상위계층 307세대가 있다.

문의(062-940-8645) /광산=기원태기자 wtkee@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금부부동산컨설팅',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Each a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